어문연구 4권 1994년 2월

문체와 수동

김 영 철*

Young-Chul Kim.(1994). Text Styles and the Passive Constructions. ***Language & Literature Research***, 4, 5~20.

This study is about text styles and the passive constructions. First, two types of language variation are distinguished as dialect and register, and then the theory of register is discussed in detail for the purpose of presenting an important basis for the corpus-based study. Then two important corpus-based text studies of the English passive constructions are compared with each other. As a result, the theory of register is essential for the corpus-based text studies and the passive construction is proved as a well-defined stylistic variabl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rpus-based studies of written texts based on the register theory are essential for finding out some proper styles with bundles of stylistic features. Then we could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passive as well as the function of the passive.

1. 서 론

여러 언어학자들이 수동문의 사용과 영어의 다양성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주목해 왔다. 그러나 그 관련성의 본질에 관하여는 서로 차이가 있다. Christophersen & Sandved(1969:227-228)는 수동문은 과학적 산문에서 처럼 비인칭(impersonal) 문체를 사용하고 싶을 때 쓰는 것이라고 하며, Leech & Svartvik(1975:258-259)도 마찬가지로 수동문과 비인칭 문체를 연관짓는다. Bryant(1959:68)는 수동문은 단지 문어체에만 흔히 쓰인다고 한다.

몇몇 학자들은 수동문과 문체의 관계는 무주체 수동문에만 유효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Palmer(1974:86-87)는 "수동문은 행위자가 미지이거나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 사용된다. 그래서 과학적 산문, 특히 연구 보고서에

*한국 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부교수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누가 그것을 했는지 지시하지 않고 비인칭적으로 서술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Jacobsen(1977: 295)은 행위자와 생략변형에 관하여 "수동문은 뉴스회보, 사용설명서, 과학 및 기술언어 등 어떤 특수한 문체의 특징이다."라고 한다.

이처럼 수동문과 문체의 관계가 널리 인정되고 있다면 수동문을 하나의 문체 표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Nash(1980:140-2)는 수동문을 격식적(formal) 담화의 표지로 보며 "A further stylistic property of the passive is that it noticeably cools the manner of address - i. e. it is an index of the formal tone,"이라고 설명한다. 비슷한 생각으로 Crystal & Davy(1969)는 수동문을 구어체 텍스트와 문어체 텍스트가 서로 비교 될 수 있는 하나의 변항으로 보고 과학적 산문에 비하여 회화체의 한 변별 특징은 수동문의 사용빈도가 대단히 낮은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수동문이 하나의 문체 표지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유형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아 수동문의 빈도를 조사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논문에서는 언어의 다양성을 방언(dialect)과 어체(register)로 구분하고, 후자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Gregory & Carroll(1978)의 어체이론을 논의한다. 이어서 어체이론에 입각하여 영어 수동문의 빈도수를 Survey of English Usage(SEU)의 구어체 영어 텍스트를 사용하여 연구한 Granger(1983)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2. 언어의 변이와 어체(Register)이론

언어의 다양성을 방언과 어체로 맨 먼저 구분지어 쓴 것은 Halliday, McIntosh & Strevens(1964:87)이다.

> A dialect is a variety of a language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 user: different groups of people within the language community speak different dialects. It is possible also to recognize varieties of a language along another dimension, distinguished according to use. Language varies as its func- tion varies: it differs in different situations. The name given to a variety of a language distinguished according to use is 'register'.

그 후 어체이론을 확립한 것은 Gregory & Carroll(1978:4)인데 그들

은 언어의 다양성을 두 유형으로 구분지으면서 이렇게 설명한다.

> one group relates to reasonably permanent characteristics of the user in language events, the other relates to the user's use of language in such events : and they yield the two main kinds of language variety that will be discussed in this book: dialects and diatypes.

이러한 언어 다양성의 두 유형을 Gregory & Carroll(1978:10)은 또한 다음과 같은 도표로 명확히 구분지어 보인다.

〈도표 1〉 방언적 변이

	Situational Categories	Contextual Categories	Examples of English varieties (descriptive contextual categories)	
user's	individuality	idolect	Mr X's English, Miss Y's English	Dialectal varieties: the lingusitic reflection of reasonably permanent characteristics of the user in language situations
	temporal provenance	temporal dialect	Old English, Modern English	
	geographical provenance	geographical dialect	British English, American English	
	social provenance	social dialect	Upper class English, Middle class English	
	range of intelligibility	standard/ non-standard dialect	Standard English, non-Standard English	

〈도표 2〉 어체적 변이

	Situational Categories	Contextual Categories	Examples of English varieties (descriptive contextual categories)	
user's	purposive role	field of discourse	Tenchnical English, non-Technical English	Diatypic varieties: the linguistic reflection of recurrent characteristics of user's *use* of language in situations
	medium relationship	mode of discourse	Spoken English, Written English	
	addressee relationship	tenor of discourse		
	(a)personal	personal tenor	Formal English, Informal English	
	(b)functional	functional tenor	Didactec English, non-Didactec English	

오늘날 수동의 빈도에 대한 자료 연구는 다양한 텍스트를 모아 놓고 있는 Survey of English Usage(SEU)에 의거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현대의 교양있는 영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자료이므로 방언적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어체가 주요한 변항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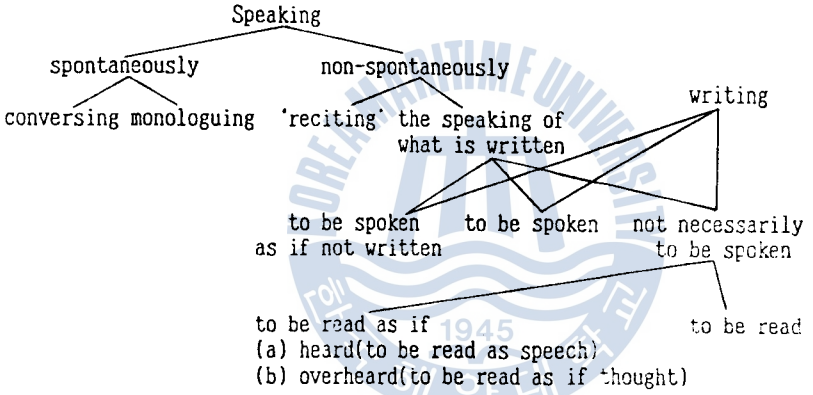
Gregory & Carroll (1978)이 제시하고 있는 어체의 세 상황 범주는 내용(field), 형식(mode), 목적(tenor)이다. 이 세 변수의 의미를 간단히 말하면, 내용은 'What's going on?' 에 대한 답변을, 목적은 'Who's taking part?'에 대한 답변을, 그리고 형식은 'What do I do with the language?'에 대한 답변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세 변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자. Gregory & Carroll(1978:7)에 의하면 첫번째 변수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Field of discourse is the consequence of the user's purposive role, what his language is 'about', what experience he is verbalizing, what is 'going on' through language.

내용은 비제한적(non-restricted)인 잡담이나 일반 회화에서처럼 화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도 있으며, 제한적(restricted)인 물리학 영어, 법

를 영어처럼 기술적(technical)일 수도 있으며, 일반적일 수도 있다. 두 번째 변수인 담화의 형식은 언어 사용자가 언어전달의 매체에 대하여 가지는 관련성을 반영하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구어와 문어로 구분되고, 다시 하위분류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의 〈도표 3〉은 Gregory & Carroll (1978:47)이 제시하는 언어전달의 매체에 따른 텍스트 구분인데 담화의 형식에 따라 텍스트가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도표 3〉 언어전달의 매체에 따른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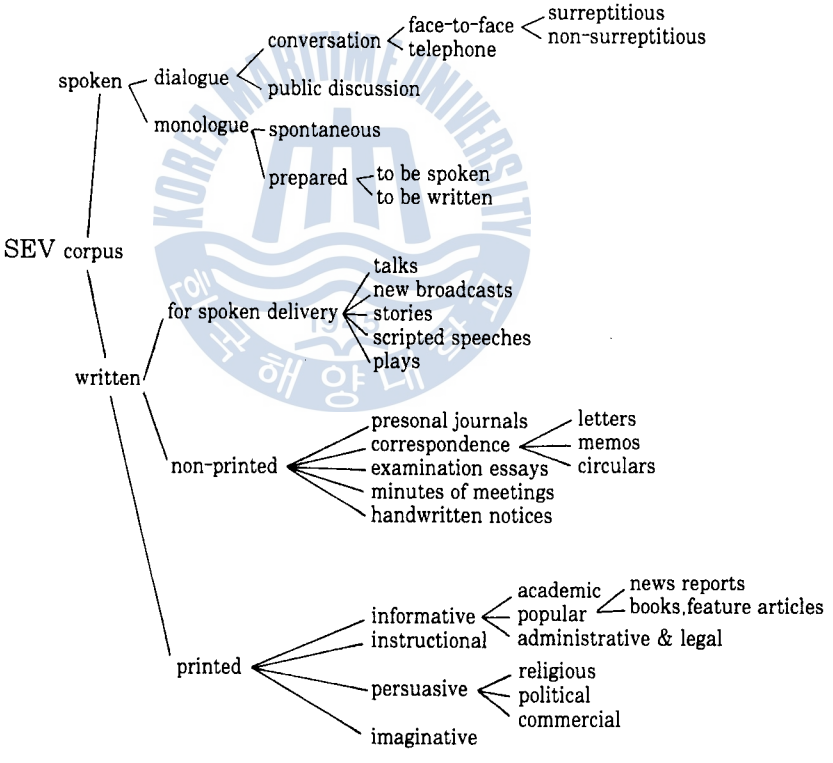
한편 Granger(1983)는 Gregory & Carroll과는 달리 구어를 대화와 독백으로 나누는데, 그 각각은 즉흥적인(spontaneous) 것일 수도 있으며, 비즉흥적인 것일 수도 있다. Granger의 이러한 하위 분류는 SEU의 언어자료를 담화의 형식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다음 페이지의 〈도표 4〉을 참고한 것이 분명하다. Granger의 이러한 분류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즉흥성의 연속변이(cline)'인데, Gregory & Carroll (1978:40-41)은 이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 The sporting commentator has studied notes and has described this sort of thing before, and people whose professions are highly verbal ones, such as the journalist, the politician, the preacher, the teacher, the lawyer and the stage entertainer, become accustomed to monologuing, and area very often called upon to speak spontaneously about the same ares of experience. This means that although they have no written text in front of them there are elements of preparation and repetition in their

speaking performances which give them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written modes.

세번째 상황변수인 담화의 목적은 "how the addresser(the speaker or writer) interacts with the addressee(the listener or reader) in an adressee relationship,"를 반영하는데, 여기에는 개인적(personal) 목적과 기능적(functional) 목적이 있다.

〈도표 4〉 Corpus of the Survey of English Usage



개인적 목적은 격식성(formality)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대단히 비격식적인 연인 사이의 대화에서부터 대단히 격식적인 법률 언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도의 격식성을 포함하는 연속변이이다. 기능적 목적은 그 상황에서 언어가 왜 사용되는지를 서술하는 데 쓰이는 범주이다. Granger (1983)는 설명(expository), 교훈(didactic), 권고(persuasive), 평가(evaluative), 논증(demonstrative), 기술(descriptive), 사교(social), 논쟁(argumenta- tive), 익살(humouristic) 등의 기능적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들 간에 중첩이 있음은 분명하다.

이상 세 가지 상황 변수를 이용하여 우리는 한 언어의 텍스트의 다양성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를 Gregory & Carroll(1978:64)은 어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 These varieties represent instances of language defined in terms of the similar points they occupy on the continuums of field, mode and personal and functional tenors of discourse. Situationally, these texts reflect similar purposive roles, medium relationships and functional and personal addressee relationships. Language texts which can be placed on the same points within the contextual categories belong to the same register. Register is therefore a useful abstraction linking variations of language to variations of social context.

이제 위에서 내려진 어체의 정의에 따라 그 상황 변수들이 여러가지 텍스트에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다음의 예로써 알아 보자.

1. 지리학 강의(lectures on geography)
   내용(F):지리학 ; 양식(M):구어체 ; 목적(T):격식적이며 강의목적
2. 설교(sermons)
   F:설교 ; M:구어체 ; T:격식적이며 설교목적
3. 조리법에 관한 책(cooking recipe books)
   F:요리 ; M:문어체 ; T:조리법
4. 개인적인 회화(personal conversations)
   F:개인적인 일 ; M:구어체 ; T:비격식적인 회화(정보교환, 경험담, 유모어 등)

위의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텍스트를 이용한 언어자료 연구에는 어체이론이

필수적이며, 어체이론을 적용하지 않은 연구는 설득력이 그만큼 약하다고 하겠다.

3. 문체적 변항으로서의 수동

S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동문의 빈도를 조사한 주요 연구로 Svartvik (1966)의 문어체 연구와 Granger(1983)의 구어체 연구가 있다. Svartvik는 32개의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8개의 세트로 나누어 그 각각의 수동문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1. 'speech' : 1 conversation + 5 discussions
2. 'advertising' : multifarious television advertisements
3. 'news' : radio news(BBC) + press news(The Times & The Daily Express) + editorials(The Times)
4. 'sports' : press reports (The Guardian)
5. 'science' : one popular book + a series of learned writings (books, articles, letters to the editor)
6. 'arts' : one popular book + one learned book
7. 'plays' : 2 plays, each by a different author
8. 'novels' : 6 novels, each by a different novelist

위의 8개의 텍스트 세트에 대한 수동문의 빈도 조사 결과는 〈도표 5〉의 컬럼 Ⅱ에 나타나 있는데, 괄호 안의 숫자는 각 텍스트의 1000단어마다 수동문이 나타나는 빈도수이다. Svartvik(1966:155)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 ...the major stylistic determining factor in the frequency of its use seems to lie in distinction such as that between informative and imaginative prose, rather than in a difference of subject matter or between the spoken and written language.

Svartvik의 이러한 결론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텍스트를 분류할 때 앞서 논의한 어체이론이라는 체계적인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구어의 범주에 회화와 토론을 함께 넣고 있음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한편 같은 언론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와 뉴스를 구분하고 있는 점과, 뉴스도 라디오 뉴스, 신문 뉴스, 사설 등으로 나누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Svartvik도 어체이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구분한 텍

스트에 나타나는 빈도수를 살펴보면 토론의 경우에는 7.8-16.0, 소설의 경우에는 5.2- 11.0으로 그 차이가 심하며, 특히 예외적으로 빈도수가 많은 텍스트가 있음을 고려하면(Svartvik, 1966:153) 구어체 텍스트이건 문어체 텍스트이건 어체이론에 입각한 텍스트의 분류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떤 구문을 선택할 것인지 화자가 결정할 때 어떠한 어체를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한 이인영(1987: 573)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결국 Svartvik는 수동문의 빈도에 따라 상기 텍스트를 분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편 Granger는 32개의 구어체 택스트를 앞절에서 논의한 어체 이론의 상황변수에 의거하여 6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는데 이를 그녀는 텍스트 유형(text type)이라 부르면서 Svartvik의 텍스트 세트와 구별짓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구어체 영어 텍스트와 Svatvik의 문어체 영어 텍스트에 나타나는 수동문의 빈도를 다음표와 같이 비교하고 있다(Granger, 1983:282).

〈도표 5〉 텍스트 유형 및 텍스트 세트에 따른 수동문의 빈도

	I	II
A.	Conversation (2) Comedy (2)	Plays (1.2) Advertising (1.8)
B.	Interview (3.6) Commentary (3.7)	Novels (4.5)
C.	Discussion (7.5) Oration (8.9)	[Speech (6.5)] Sports (7) Arts (10) News (13.6)
		Science (19.3)

위 〈도표 5〉에서 Granger는 1000단어 당 수동문이 나타나는 빈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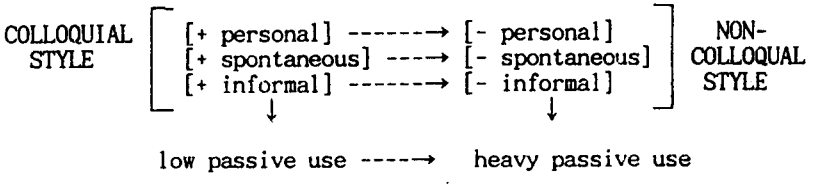
따라 저빈도(low passive) 텍스트 유형, 고빈도(heavy passive) 텍스트 유형, 그리고 그 중간 유형으로 나누어 점선으로 구분짓고 있다.

〈도표 5〉에서 저빈도 텍스트 유형은 다음과 같은 문체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담화의 내용은 비제한적이며 주로 개인적인 것으로서 정치가, 교수, 귀족과 같은 공인(public person)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을 지닌 개인으로서의 말할이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형식은 즉흥적이며, 개인적 목적은 비격식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바로 회화의 특징인 데, 가장 회화를 닮은 문학 장르인 희곡(plays)과 코메디에서도 그러한 특징이 있음을 위의 수동문 빈도표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한편 고빈도 텍스트 유형의 문체적 특징은 주로 공적이거나 사실적인 것이어서 담화의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며, 개인으로서의 화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강조하는 것은 사실과 사건이지 그에 대한 화자의 관련성이 아니다. 그리고 형식은 비즉흥적이며, 개인적 목적은 격식적이며 기능적 목적은 설명, 교훈, 권고, 평가, 논증, 기술, 사교, 논쟁, 익살 등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빈도 텍스트 유형과 고빈도 텍스트 유형의 문체적 특징상의 대조를 Granger(1983:284)는 다음 두 묶음의 자질 사이의 대조와 일치시켜 구어체(colloquial style)와 비구어체(non-colloquial style)로 구분한다.

〈도표 6〉 자질 묶음에 따른 문체 구분과 수동의 빈도



위의 도표는 연극속의 흉내 대화는 실제 대화보다 수동문의 빈도가 훨씬 적다는 Svartvik(1966:153)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광고가 자연발화보다 수동문이 훨씬 적게 쓰인다는 Leech의 주장(1966:122)을 반박할 수 있게 해 준다.

Svartvik의 텍스트 세트인 뉴스가 꽤 높은 수동문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그는 무표의 어체라고 할 수 있는 신문방송문체를 모두 같은 텍스트 세트에 묶어두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McDonald & Sager(1974:14-15)는 영어 신문언어를 연구한 책에서 두 종류의 신문 즉, 백만부 이상의 높은 판매부수를 가지는 대중신문(populars)과 그 이하의 낮은 판매부수를 가지는 고급신문(qualities)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The populars are characterized by a visual rather than a verbal appeal, exemplified as much by the typography and the layout of the page, as by the presence of photographs, a concentration on 'human interest' stories, and by the 'personalisation' of such hard news as they do report, by the brevity of all units of prose (sentences, paragraphs, articles) in all sections of the paper, and by a more colloquial and less formal style."

위의 주장처럼 대중신문 문체가 고급신문 문체보다 훨씬 더 회화적이라면 우리는 두 신문에서 수동문의 빈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Crystal & Davy(1969:192)는 이러한 가설을 확인해 주는 조사를 하였는데, 같은 날 똑같은 이야기를 기사화한 두 신문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중 신문은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각도에서 그 이야기를 제시하며 대단히 비격식적인 언어 형태를 사용한다. 즉 실제의 대화가 인용되고 구어체의 특징이 그대로 보존된다. 반대로 고급신문인 The Times는 개인적인 일들 대신에 연구의 세부,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배경등을 실으며 논조(tone)는 훨씬 더 격식적이며 제한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수동문의 빈도에 영향을 끼친다. 대중신문에서는 수동문보다는 능동문을 쓰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 고급신문에서는 많은 수동문이 사용되고 있다.

위의 〈도표 5〉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Svartvik의 텍스트 세트인 '구어(speech)'는 수동의 빈도수에 있어서 Granger의 회화보다는 토론의 범주에 훨씬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의 '구어'에는 5개의 토론 텍스트와 단 하나의 회화 텍스트가 들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제 구어체에는 왜 수동문이 잘 쓰이지 않으며, 비구어체에는 잘 쓰이는지를 생각해 보자. 구어체의 경우 수동문이 잘 쓰이지 않는 이유는 첫

째, 수동문이 쓰일 수 있는 상황이 좀처럼 발생하지 않으며 둘째,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비구어체의 경우에는 수동문이 쓰일 수 있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나며, 달리 대체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동문이 빈번히 쓰인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구어체라고 할 수 있는 회화와 가장 전형적인 비구어체라고 할 수 있는 토론 및 연설을 예로 들어 수동문과 관련된 몇 가지 관점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자.

(1) 동사부류의 의미

회화 텍스트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동작동사(activity verb)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이다. Halliday(1968:193)에 의하면 비격식 회화의 거의 4분의 3 가량의 절이 정신과정 동사인 지각(perception), 인지(cognition), 반응(reaction), 언행(verbalization)등을 포함하고 있다. Granger(1983: 318)도 그녀가 연구한 텍스트에서 수동문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동사는 think, hope, remember, feel, see, hear, know, say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경험자가 현상에 앞선다는 경험자 우선 원칙(Experiencer First Principle)에 의해 수동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please'형에 속하는 동사의 경우가 수동문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정도이다. 또한 회화에는 수동화되지 않는 have나 get 동사가 대단히 많이 쓰이고 있음도 그 이유가 된다.

한편 토론 및 연설 텍스트는 근본적으로 공적인 것이므로 정신과정 동사는 거의 쓰이지 않으며, 따라서 그만큼 수동화가 가능한 동사가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다.

(2) 주어선택

회화 텍스트에서는 주어가 심리언어학적 근거, 즉 화자의 관점에 의해 선택된다. 따라서 주어는 대개 무생물 보다는 생물, 비인간보다는 인간, 피동자보다는 행위자, 미지의 사람보다는 알려진 사람 등을 나타내는 명사구가 된다. 이를 위계화 하면 경험자 또는 행위자, 수혜자, 피동자의 순서가 된다. 결국 피동자를 주어로 선택하기는 특히 그것이 무생물인 경우

매우 어려우므로 회화 텍스트에는 수동문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토론 및 연설 텍스트에서 주어는 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화자는 문장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해주는 요소를 주어로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앞 문장에서 언급된 요소, 앞 문장과 관련 있는 요소를 주어로 택하거나, 한 문단 전체를 두드러지게 할 목적으로 단 하나의 꼭같은 명사구를 화제로 삼아 문장의 주어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토론 및 연설 텍스트에는 많은 수동문이 나타나며, 주어는 유생물이거나 무생물, 행위자거나 피동자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선택될 수 있다.

(3) 유표초점과 무표초점

행위자 표시 수동문의 주 기능은 신정보 행위자를 초점화하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회화 텍스트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신정보 행위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특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긴 구조의 행위자는 더욱 그렇다. 사실, 대부분의 행위자는 인칭대명사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신정보의 무표초점 위치인 문미에 행위자가 오는 수동문 역시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 둘째, 신정보 행위자가 있을 경우라도 그 행위자를 강조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여 그 '신정보성'에도 불구하고 흔히 주어로 선택되는데, 이것은 구어의 특성상 흔히 유표성조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화자는 수동문보다는 유표성조를 지닌 능동문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동의 빈도는 적어진다.

한편 토론 및 연설 텍스트에는 많은 신정보 행위자가 사용되는데, 종종 후치수식어가 부가된다. 따라서 문미의 초점화는 당연한 현상이며, 회화 텍스트보다 유표성조가 쓰일 가능성도 훨씬 적다. 그리고 토론과 같이 사실에 근거한 텍스트에서 무표의 정보구조는 구정보-신정보의 순서이기 때문에 화자 또는 작자는 가급적 그러한 순서를 지키려고 하며, 따라서 신정보 행위자가 문미에 오는 수동문이 많이 쓰인다.

(4) 행위자 생략

행위자 생략은 행위자가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일 때 가능하며 또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회화 텍스트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행위자를 생략하는 무주체 수동문 대신에 일반대명사 you를 주어로 삼는 능동

문을 많이 사용한다. 이처럼 비격식 you를 사용하는 것이 회화 텍스트의 변별적 자질임을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히 수동문의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토론과 같이 사실과 사건을 강조하는 텍스트에서는 행위자는 복원이 가능하면 생략된다. 특히 앞 문장과의 연결이 용이하게 될 때는 쉽게 생략된다. 전문분야에 관한 토론이나 설교의 경우 행위자는 종종 쉬이 복원된다. 가령, 정치토론에서는 정부, 설교에서는 하느님이 행위자 주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회화 텍스트보다 토론 및 설교 텍스트에 수동태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Stanley(1975, 1977)의 지적처럼 화자 또는 작자는 자신과 타인을 특정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동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주제의 심각성 및 격식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토론 및 설교의 주제는 대개 심각하며 격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작자는 위험과 책임으로 부터 피할 언어적 안전장치를 찾아 사용하게 되며, 그 중에 행위자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무주체수동문이 특히 손쉬우며 안전한 것으로 여긴다고 생각된다. Granger(1983:314)는 생략된 행위자가 문맥상 분명하여 어떤 심각한 정보손실을 야기시키지 않고 청자에게 애매하지 않은 경우의 수동문을 무해수동문(innocuons passive), 그리고 화자가 고의로 어떤 음흉한 목적을 위해 무주체 수동에 내재한 행위자 의 불확정성을 이용할 경우의 수동문을 잠행수동문(insidious passive)이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수동문은 하나의 문체적 변항인 점과 그러한 변항을 가져오는 자질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체이론에 기초한 텍스트 유형을 적절히 구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구분은 어떤 텍스트 유형에 수동문이 많이 또는 적게 쓰이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해주며, 그러한 예측은 수동문의 제 기능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4.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수동문을 하나의 문체표지로 보고 여러가지 유형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아 수동문이 어떠한 문체에 선호되는지를 연구한 논

문들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았다. 먼저 언어의 변이를 방언과 어체로 구분하여 논의하였으며, 다음으로 어체이론을 상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필자는영어 수동문과 같은 텍스트 연구는 방언보다는 어체에 기초한 연구가 더 중요하며, SEU와 같은 자료가 그런 방향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SEU를 활용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영어 수동문에 관한 연구로는 Svartvik의 문어체 텍스트 연구와 Granger의 구어체 텍스트가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하다. 이 두 연구의 비교를 통하여 특히 어체이론이 문체 연구에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장을 통하여 수동문이 문체적 변항임을 알 수 있었고, 수동문을 선호 또는 비선호하는 본질적인 문체적 변별자질들을 가려낼 수 있음도 알았다. 그리고 이러한 변별자질을 가지는 문체들이 텍스트적 또는 화용론적 요인의 도움으로 어떻게 수동문을 선호 또는 비선호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필자는 영어 수동문의 기능은 텍스트적 기능 및 화용론적 기능 뿐만 아니라 문체적 변항으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Granger의 구어체 텍스트 연구처럼 문어체 텍스트의 경우에도 어체이론을 이용한 텍스트 연구가 이루어져야 상상적 산문(imaginative prose)과 정보적 산문(informative prose)의 구분에 따라 수동의 빈도는 결정되는 것 같다고 한 Svartvik의 주장을 더 다듬은 문체 분류가 가능할 것이며, 그러한 문체에 포함될 변별자질 역시 향후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인영. 1987. 러시아어 피동구문의 기능, 어학연구 23.3. 553-582.

Bryant, M.M. 1959. ***A Functional English Grammar.*** Boston: D.C. Heath & Co.

Christophersen, P. & A.O. Sandved. 1969. ***An Advanced English Grammar.*** London: Macmillan.

Crystal. D. & D. Davy. 1969. ***Investigating English Style.*** London: Longman.

Granger, S. 1983. T***he BE + PAST PARTICIPLE Construction in Spoken English.*** North-Holland: Elsevier Science Pubs. B.V.

Gregory, M. & S. Carroll. 1978. ***Language and Situ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Halliday, M.A.K. 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2. ***Journal of Linguistics*** 3.2. 199-244.

_____. 1968. Notes on transitivity ans theme in English - Part 3. ***Journal of Linguistics*** 4. 179-215.

Halliday, M.A.K., Mclntosh, A. & P. Strevens. 1964. ***The Linguistic Science and Language Teaching.*** London: Longman.

Jacobsen, B. 1977. ***Transformational-Generative Grammar.*** Amsterdam: North-Holland Pub. Co.

Leech, G.N. 1966. ***English in Advertising,*** London: Longmans.

Leech, G. & J. Svartvik. 1975.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London: Longman.

McDonald, P.F. & J.C. Sager. 1974. The languages of English ***Journalism - A Workbook for Students.*** M nchen: Max H ber Verlag.

Nash, W. 1980. ***Designs in Prose.*** English Language Series 12. London: Longman.

Palmer, F.R. 1974.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Stanley, J.P. 1975. Passive Motivation. ***Foundations of Language*** 13. 25-39.

Stanley, J.P. & S.W. Robbins. 1977. Forced inference. ***Papers in Linguistics*** 10/3-4: 299-311.

Svartvik, J. 1966. ***On Voice in the English Verb.*** The Hague: Mouton.